

# 오일시장에선 무용지물인 '탐나는 전'

### 가맹점 필수 사항 '사업자 등록' 않은 점포 대부분 상인회 "시장서 쉽게 사용가능하게 제도개선 필요"

"오일시장에서 제주지역화폐 가맹점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지난 2일 장을 보기 위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은 박모(57)씨는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사용해 각종 채소를 구입하려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탐나는 전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박씨는 가까운 ATM자동화기에서 현금을 찾은 뒤 반찬거리를 살수 밖에 없었다. 박씨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해서 탐나는 전을 구매했지만, 정작 오일시장 내에서는 가맹점을 찾기 어려워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탐나는 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발행됐다. 지난달 26일 기준 탐나는 전 가맹점 가입 및 승인현황은 3만1143개소다. 이는 전체 가맹점 대상 4만7000개소의 66.2% 수준이다.

그러나 오일시장과 전통시장의 경우 탐나는 전 가맹점 가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나는 전은 '제주 지역화폐 발행 조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맹점 가입 신청이 가능한데, 오일시장 특성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노점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따

르면 오일시장 내 탐나는 전 가맹점 가입 비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오일시장 내에는 소규모로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할머니 상인들이 2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하루 매출액이 적은데다, 탐나는 전 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해 굳이 세금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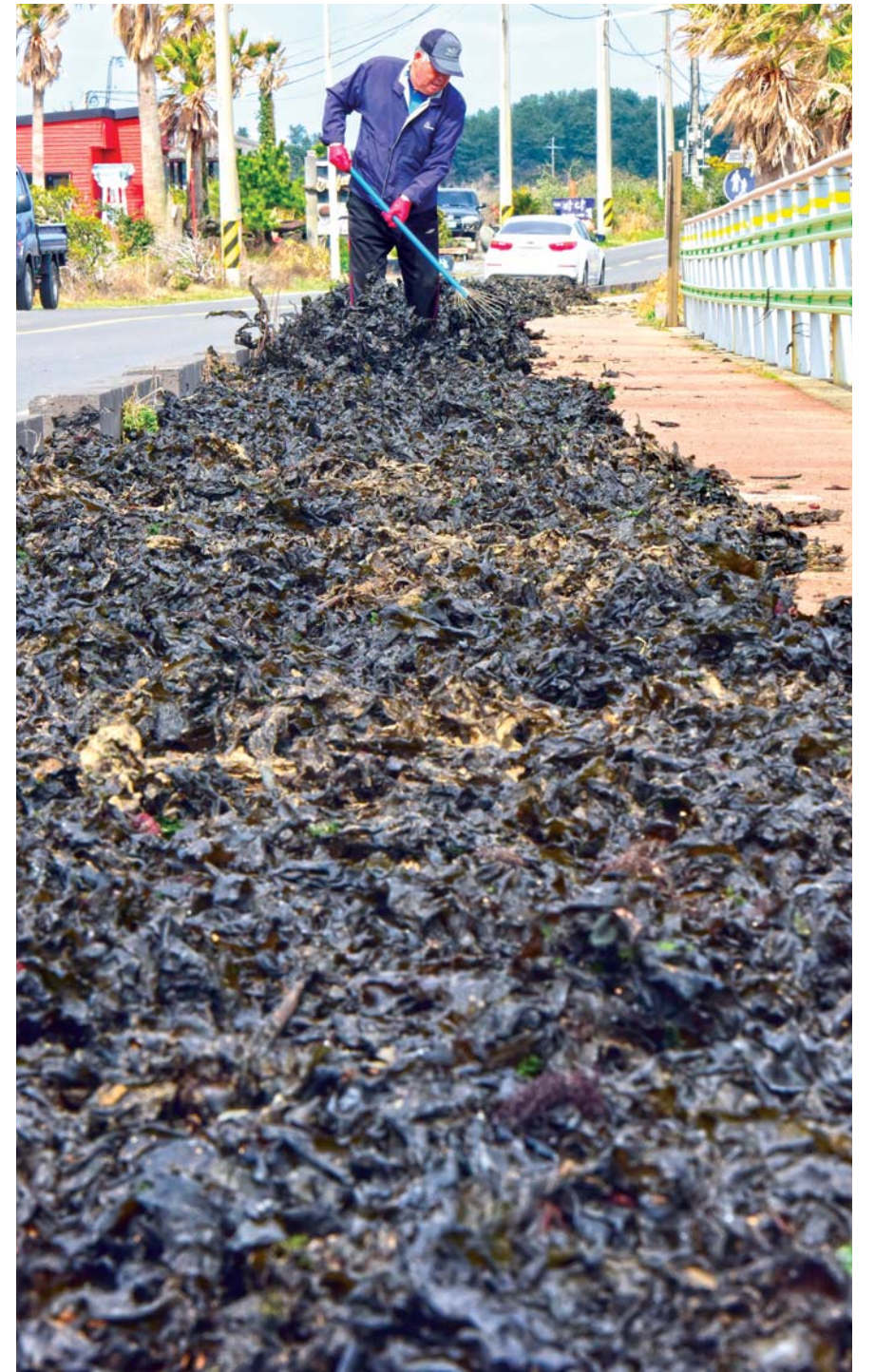
또 가맹점은 아니지만 간혹 손님들로부터 탐나는 전을 받은 상인들은 주변 가맹점 상인에게 부탁해 대리 현금을 교환하는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도 일부 노점상 등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탐나는 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하루하루 소액을 벌

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할머니 상인들에게 사업자 등록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적용해 탐나는 전 가맹점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상인회 소속이면 탐나는 전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 등으로 지역화폐와 관련한 조례 개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오일시장과 전통시장을 찾아 탐나는 전 홍보와 상인들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달 청정바다産 '감태' 3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도로에서 한 마을 주민이 청정 종달바다에서 수확한 감태를 말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개소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YWCA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주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소하는 제주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 2명이 피해자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의 주요 지원 내용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상담 및 초기 긴급 삭제지원 ▷중앙센터 등과 연계한 불법영상물 등 유포 및 삭제지원 현황 모니터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료, 수사기관·법원 동행, 무료 법률 연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치유 회복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3일 개소한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부로11길 3에 위치해있다.

강대기기자 dhkang@ihalla.com

# 원격수업 학생 점심 먹으러 학교 간다?

### 교육청 4월부터 급식 계획... "탄력 운영위해 수요조사" 학부모 반응 미지근 "생색내기 같아... 매일등교가 필요" 일선학교 "현실적으로 애로점 많아... 구체적 논의 필요"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급식 확대에 따른 희망 학생 대기장소 마련과 등하교 지도, 급식시간 배정 등 학교의 생활·급식지도 등 방역 부담과 원거리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영양관리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등교 학생 외에 원격수업 학생에게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급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각급 학교에 전달한 '원격수업 학생 대상 탄력적 급식 운영 세부추진방안(예시)'을 보면 전체 교직원 협의를 통해 원격수업 학생 대상 탄력적 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12일까지 원격수업 기간 급식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중 구체적 일정안내와 모의훈련을 실시해 4월 1일부터 원

격수업 희망학생을 포함해 탄력적 급식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대상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도내 대규모 학교 36개교다. 일부 학교에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도교육청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초 교장은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점심을 받으러 올 건지, 와서 먹고 갈 건지, 도시락을 배달해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규모 학교라 이미 6~7교대로 시차 배식이 이뤄지는 등 급식실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다 안전 등·하교 지도의 애로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도중 학교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만큼 원격수업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감도 표했다.

B초 교장은 "학부모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멀어서 (점심 먹으러 학교 오기) 힘들다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자녀의 점심을 걱정해야하는 맞벌이 부모 반응도 미지근했다.

한 학부모(초4·중3 자녀)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점심 10~20분 먹으려고 1시간을 소모해야하고 사고우려도 있다.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농산물꾸러미나 상품권 등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도움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초6 자녀)도 "밥만 먹으려는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매일 등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급식 지원은 도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로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제주대, 인공지능전공 등 첨단학과 신설

### 교육부 내년 3개 학과 승인

2022학년도부터 제주대학교에 인공지능(AI)전공 등 첨단학과 3개가 신설된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월 말 교육부가 제주대의 첨단학과 신설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설 예정인 첨단학과는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로 학

생수는 총 65명이 증원된다. 이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동결·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AI·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학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제주대가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는 등 자발적 조정 노력에 따른 것이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와 인공지능전공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다. 또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는 제주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디컬과 헬스분야에 중점을 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석언 총장은 "신설되는 첨단학과가 시대 흐름을 적극 수용하면서 우리 대학 미래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학과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대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을 적극 알리며 우수 신입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